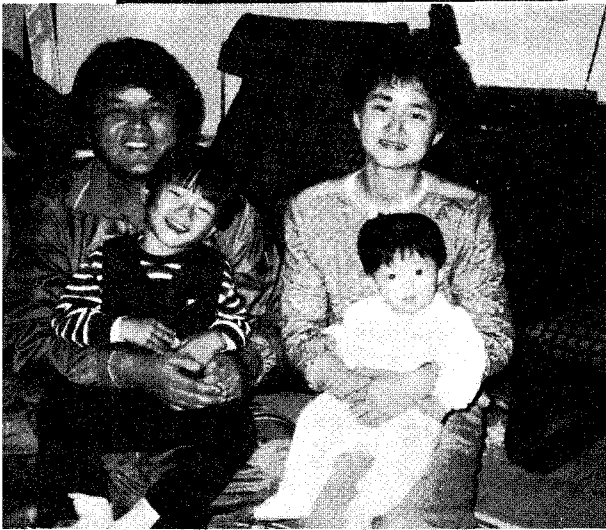


양계업, 젊음의 도전장으로 생각

“
양계산업은
80년대 성장주도를 근간으로
90년대는 안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성희씨, 부인 한영화씨,
아들 우용·우국군

타 축산업에 비해 양계업은 우리나라에 일찍 정착하여 그 역사가 깊은 편이다. 이로인해 농장 경영인의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게 또한 특징이다.

최근들어 양계 2세나 젊은 경영인들이 양계업에 뛰어들고 있어 서서히 세대교체의 감이 없지않다.

이런 현상은 육계업에서 현격히 나타나고 있으나 채란계 및 증계부화업에는 그다지 많지않은 편이었다.

경제행위, 즉 사업에 무슨 나이가 상관있느냐고 할지 모르나 초창기에 양계산업을 주도했던 기성계 층과, 정착된 양계업을 확대·발전시키려는 신진 계 층간의 견해차이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80년대를 양계산업의 정립 기간으로 본다면 90년대에는 이를 바탕으로 확고한 안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로 보고 있다.

이미 수입개방에 대처키 위해 모든 생산비를 최저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일고 있으나 실제 시행하려는 의지는 매우 미흡한 것 같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격 진폭이 기성세대에게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재투자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경기 흐름에 따라 시한부적으로 양계업을 경영하는 기존 양계인들이 많아지자 보기 드물게 30대들이 채란업은 물론 많은 경험과 자금이 요구되는 증계부화업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듯하다.



▲기성양계연구소 전경

기성양계연구소 대표 이성희(33세 李成熙)씨가 육용종계 부화업에 도전장을 던진 장본인이다.

나이에 비해 경력이 많은 이사장은 10여년전 육계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양계와 인연을 맺었다. 그후 계속되는 불황을 이기지 못해 산란계 농장에 들어가 경험을 쌓은뒤 임대한 농장에 육계와 산란계를 시세에 따라 넣어가며 사업을 하였다.

82년 북경기는 병아리 부족현상이 나타나 애타계 기다리던 입추를 자금이 모자라 농치는 비운을 겪었다. 끝내 누적된 사료외상값을 감당기 어려워 있는 재산 정리하여 빚청산하는 일찌기 어린나이에 실패의 경험을 맛보고 내쳐 부산으로 떠돌아 다녔다.

차비도 없어 골목골목을 걸어서 일거리를 찾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부인 한영화씨는 이사장과

동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아량으로 재기의 힘을 더욱 빨리 모을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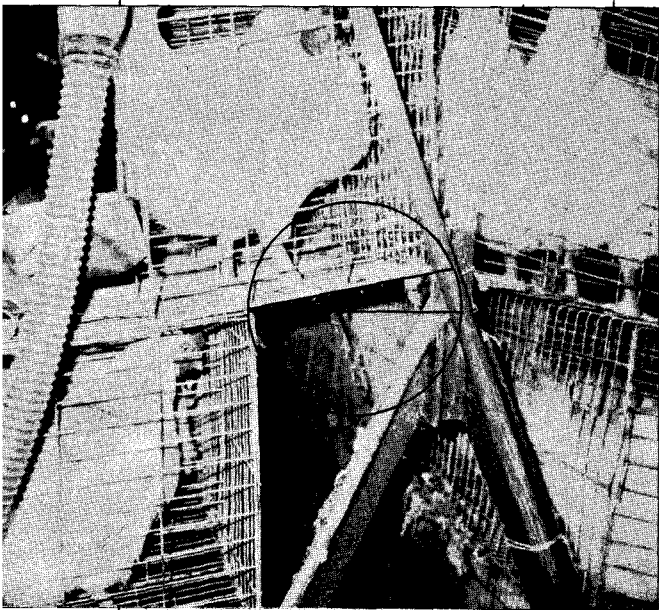
덕분에 떠돌이 생활을 일찍 청산하고 다시 경기도 광주군으로 돌아와 산란계를 다시 시작하였다.

실패후의 재도전은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끔 만들었다. 이때부터 이사장은 연구하는 양계인의 긍지를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82년 북경기에 병아리를 입추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잊혀지지 않아 육용종계장을 경영하는 것이 늘 희망이었다.

2년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에 총대지 15,000평을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기성양계연구소라는 상호로 육용종계장 800여평을 조성하는 대대적인 공사끝에 89년 완공하여 육용종계부화업을 시작하기에

“
**종계부화업에
 입문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병아리만 팔아먹는
 부화업자이기 전에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양계인이 되고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유통부문에다 관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내가 케이지 경사정도

이르렀다.

농장명대로 종계연구에 몰두하는 이사장은 머지않은 장래에 국산계를 개발해내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종계장의 계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케이지 경사도로 인해 파란율이 15% 정도나 되고 있어 케이지 경사를 낮추는 밴딩작업을 해야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계분처리시설이 미비하여 계분발효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있어 용이롭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부화장 경영은 이사장의 경험에 비추어 병아리가 아무리 부족하여 선입금 된다해도 한농가에 대량으로 공급해 주는 일이 없다.

주문수수에 비례하여 적절히 배분하여 소규모업자들이 입추를 못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제 종계부화업에 입문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병아리만 팔아먹는 부화업자이기 전에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양계인이 되고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유통부문에다 관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규모 단위로 인티그레이션을 구축하여 부화업을 배경으로 계열화산업을 해나갈 뜻이 있음을 밝혔다.

30대 초반의 기백으로 단순한 부화업을 탈피하여 체계적인 계열화산업을 정착시켜 병아리 생산부터 닭고기 유통산업까지 생산자가 장악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사육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며 부화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30대가 자수성가하여 종계장을 경영한다는 것이 양계업계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에는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고 이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 대폭 이루어져야 양계산업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경기여하에 따라 양계산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가려는 양계인이 많을 때 90년대 양계산업은 질적인 발전이 이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김용화 기자)